

Appendix 1

Reading materials and questionnaires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미호

연아와 미호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2학년 때 미호가 옆집으로 이사 온 이후로 방과 후 거의 매일 같이 놀았습니다.

연아는 학교에서 숙제를 열심히 하고, 많은 책을 읽었고, 발레 수업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미호는 학업보다 축구를 즐기고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였으며, 책의 한 단원을 거의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연아와 미호는 종종 길 건너 공원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두 친구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동네 친구들과 축구를 하거나 술래잡기를 하였습니다. 밖에 비가 내릴 땐, 두 친구는 집에서 공예품을 만들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였습니다. 두 친구는 어떤 날에는 아무 문제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어떤 날에는 무엇을 할지에 대해 싸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장난감 가지고 놀자. 우리 3일 동안 축구만 했어!”라고 연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보다는 축구를 하고 싶어.”라고 미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놀 때 왜 맨날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어.”라고 연아가 말했지만, 미호는 “좋아, 너 혼자 장난감 가지고 놀아! 나는 축구 할게!”라고 소리쳤습니다.

연아는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연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이 미호의 공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이걸 돌려주지 않을 거야. 미호 진짜 미워!’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미호는 숙제를 한 공책이 없어서 선생님께 내일 숙제 검사를 받아도 되는지 여쭙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_____.”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호는 화가 나서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연아는 선생님께 미호의 공책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에 연아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호 공책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어제 미호와 싸웠고, 아직 화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연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연아야, 솔직하게 말해주어서 고마워.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니 기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선생님은 두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아야, 미호야. 친한 친구라고 해서 매일 같이 놀 필요는 없단다. 매일 같이 놀지 않아도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어.”

‘애완동물과 함께 등교’하는 날의 재앙

‘애완동물과 함께 등교’하는 날에 나는 가방을 메고 손에 목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강아지 짱아와 버스정류장으로 즐겁게 걸어갔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애완동물을 키웠습니다. 수지는 물고기 니모가 사는 어항을 들고 있었습니다. 석진이는 그의 고양이 키티가 있는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원이는 잉꼬 쑥쑥이가 있는 새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서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스에 올라타고 내리막길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떠돌고, 동물들이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내서 버스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짱아는 여기저기 냄새를 맡느라, 나와 함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았을 때, 다른 개가 뒤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개와 짱아는 서로 냄새를 맡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초코! 돌아와!" 3학년 학생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개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게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각자 애완동물 잘 데리고 있으세요."라고 버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학교 운동장을 보았습니다.



학교는 마치 동물원 같았습니다! 사방에 모든 종류와 크기의 개, 새장 속의形形色색 새, 토끼, 친칠라, 고슴도치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잔디밭과 보도 위를 자유롭게 뛰어다녔고, 친구들은 동물들을 사방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잔디 위에 애완동물들의 물건이 널브러져 있었고, 공중에는 털이 날아다녔습니다. 나는 ‘학교 밖이 이렇게 심한데, 학교 안은 더 심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잔디에서 짹짹 뛰는 캥거루와 계단을 뛰어오르는 공작새도 보았습니다. 나는 교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버스보다 냄새가 더 지독했습니다. 사방에 여전히 동물들이 마구 뛰어다니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애완동물들을 책상에 묶어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앵무새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 ‘애완동물과 함께 등교’하는 날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